

# 본예산 5천억원 시대 이어간다

### 임실군, 2025년도 예산안 5072억원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45억원 증가

임실군이 5,072억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임실군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

이는 금년 본예산 대비 45억원(0.89%)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33억원(Δ0.68%) 감소한 4,7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원(37.15%) 증가한 287억원이다.

심 민 군수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지방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직성 예산 삭감과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본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17억원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13억원 △한우 특화거리 조성 11억원 △봉어섬 생태

공원 보완사업 10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9억원 △임실 치즈 아이랜드 조성사업 8억원 △자라섬 연계 관광자원개발사업 8억원 등의 예산과 함께 '2025 임실 방문의 해' 개최를 위한 예산도 꼼꼼히 편성했다.

또한,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임실·오수·금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7억원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3억원 △강진지구 농어촌생활권 개발사업 35억원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0억원 △농공임대주택 건립지원 25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억원 등과 함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야구장 건립 15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6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과화영농시설 조성사업 50억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29억원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28억원 △배수개선사업 2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억원 △

농작업대행단 운영 및 장비지원 사업 8억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 이미지 및 목욕비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심 민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며, 더욱 면밀한 세원 분석을 통해 전년 대비 45억원이 늘어난 5,0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어렵게 편성된 이번 예산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보건의료원,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 나선다

순창보건의료원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비하고자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강관리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보건의료원 4명, 보건지소 10명, 보건진료소 17명 등 총 31명의 전담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한파주의보와 경보 발생 시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 인력들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한랭질환별 응급조치법과 예방수칙을 상세히 교육하고,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낙상사고 예방법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은 △가벼운 실내운동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18℃~20℃) △적절한 수분섭취 △

충분한 영양섭취 △의술선 날씨 정보 확인하고 추운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기 △의출시에는 목도리, 장갑, 모자 등 보온에 신경쓰기 등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촘촘한 건강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한우특화거리 조성 '순향'... 전문음식점 조성

임실군이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군은 운암면 생암리 526-13번지 일원 에 총사업비 61억 원(지방소멸대응기



임실군이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금 42억 원, 군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한우특화거리에 한우 음식점을 건립 중이다.

현재 외부 마감공사 마무리 작업 진행 중으로 부지면적 2,500㎡, 연면적 777.91㎡에 단층 규모로 세워지며, 한우 전문음식점이 조성된다.

총 좌석수는 154석으로 내부에 10개의 룸 시설을 완비하여 보다 쾌적한 실내 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심 민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옥정호 출렁다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암면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형 레이싱드론' 해외 관심

### 국내 최초 남원형 380mm급 드론 레이싱 시범경기 후 문의 이어져

남원시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남원형 380mm급 드론 레이싱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시범경기 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일에서 4일까지 펼쳐진 380mm급 남원형 드론레이싱 시범경기가 11개국 2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새로운 기체를 통한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범경기는 기존 150~220mm급 드론 기체들이 경량화와 빠른 속도로 실제 경기에서 관중들이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시에서는 드론 전문회사인 ㈜인투스카이(대표 정선웅)와 함께 기체 크기를 확대하고 식별이 쉽도록 기체마다 LED 등을 추가 설치하여 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기체를 선수들에게 일괄 보급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시범경기 후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문의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에서는 11월 4일 중국 상하이시 체육부 소속 드래곤플라이클럽 주관으로 남원형 기체 60대를 임대하여 6개국 16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 레이싱 드론 회사에서도 남원형 기체를 통한 자체 리그 운영을 위해 기체 5대분을 도입하여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범경기에 참가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남원형 380mm급 경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형 380mm급 드론을 통한 새로운 레이싱 플랫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물 디지털화, 영상송출 방식 개선 등 고도화 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에 지속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여하는 '식중독예방 우수기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순창군, 식중독 예방 노력 인정받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기관상

순창군이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여하는 '식중독예방 우수기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순창군의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식품안전 관리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촘촘한 식중독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특히 계절별 맞춤형 예방 전략을 수립하여 시기별 고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높이 인정받았다.

대표적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가을 행락철에는 강천산 등 주요 관광지 일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노약

자와 학생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와 위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군은 또한 관내 외식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내 식중독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행정과 관내 식품접객업소, 주민들의 협조와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남원시, 버스정류장 17곳에 온열등 설치

남원시는 추운 겨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17곳에 '한파저감시설(온열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온열등은 방풍시설이 설치된 버스정류장 상부에 온열등을 추가로 설치, 열기로 버스정류장 내 높은 보온 효과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런 대설 및 한파시에 시민들의 추위를 녹이는 공간으로써 한랭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온열의자 및 방풍시설 등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버스 승강장에 한파 저감 시설을 꾸준히 설치·확충하여 왔으며, 이번에 설치되는 온열등은 고령자와 유아 등 이용객이 많은 시내권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며 버스 운영시간에 맞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동, 한파 한파 저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한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백규근 안전재난과장은 "시민들이 매서운 한파에 추위를 피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음식점 후드 덕트 화재 발생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음식점 주방에서 사용하는 후드·덕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화재 유형은 후드·덕트·벽체에 고착된 기름때에 불티가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수칙은 배기덕트는 설치시 0.5mm 이상 간격 등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기름 찌꺼기를 청소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점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에 대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도 함께 비치해야 한다.

나형철 팀장은 "주방 화재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